

타임테이블

1부

(13:00—13:05) 인사말—윤율리(책임기획)

(13:05—13:10) 소개 및 일정 안내—유현진(일민미술관 학예팀)

(13:10—13:50) 내셔널 브랜드와 사진가들: 1980~90년대 카탈로그 사진

대담: 구본창(참여 작가), 김용호(참여 작가), 김선옥(디자인토프 대표)

진행: 최현숙(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

2부

(14:10—14:50) 매체사진을 축으로 보는 한국 잡지 연대기 1965~1987

강연: 전가경(사월의눈 대표)

(15:10—15:50) 동시대 이미지 수용 방식의 변화와 기호로서 상업사진의 이미지

발제: 김아영(IMA 크리티क्स 연구자), 송채정(IMA 크리티क्स 연구자)

진행: 김진주(일민미술관 학예팀)

3부

(16:10—16:50) 예술 실천의 커머셜한 방식들—광고, 잡지, 스튜디오와 에이전시의 사례

대담: 김현성(참여 작가), 목정욱(참여 작가)

진행: 이미혜(기획 협력)

(17:10—17:50) 스트리트 문화와 사진-이미지-콘텐츠: 패션과 스타일, 무가지를 중심으로

강연: 홍석우(The NAVY Lab 디렉터), 장석중(Double Lovers 디렉터)

참여자 소개

구본창(참여 작가)

구본창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을,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다. 1987년 알렉시오를 시작으로 에스콰이아, 논노 등의 브랜드 카탈로그와 이영희 한복, 진태옥 프랑소와즈, 이신우 오리지널리 등의 화보를 촬영했다. 한국의 미의식을 드러낸 <탈> (2002)과 <백자>(2004) 연작을 발표했으며, 2001년 삼성 로댕갤러리, 2010년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용호(참여 작가)

김용호는 1992년 도프 앤 컴퍼니를 설립했으며, 청담동 스튜디오 건물에 벨 에포크 시대의 살롱 문화를 표방한 카페 드 플로라와 와인 바 A.O.C를 열었다. 1990년대 무크, 시스템, 옐칸토 등의 카탈로그 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 루이비통과 페리에 주에 광고를, 2012년 현대카드 광고를 제작했다. 2008년 대림미술관,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선옥(디자인토프 대표)

김선옥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논노 광고판촉실에서 근무하며 광고 업무가 세분화 되지 않았던 시기 홍보, 카탈로그 제작, 마케팅 등 총체적인 브랜딩 업무를 담당했다. 1992년에는 파리에서 유학한 이후 1993년 패션전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디자인토프(DESIGN T O F)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최현숙(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

최현숙은 의상디자인과 복식미학을 연구해왔다. 한국 패션 박물관 건립을 위한 패션 박물관의 기능과 현황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장과 패션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원장, 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가경(사월의눈 대표)

전가경은 디자인 스튜디오 AGI Society 출판팀에서 이미지 중심의 단행본을 기획 및 편집했다. 2012년부터 사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판사 사월의눈을 운영하면서, 사진—텍스트—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진책을 만들어오고 있다. 『세계의 아트디렉터 10』(안그라픽스, 2009), 『세계의 북디자이너 10』(공저, 안그라픽스, 2016) 등을 썼다.

김아영(IMA 크리티क्स 연구자)

김아영은 동시대 사진과 영상 매체를 연구한다. 미술과 사진을 유연하게 오가는 전시 기획과 비평에 관심이 있다. 사진과 예술학을 전공했으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에서 일했다. 현재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학예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일민미술관 비평 연구 프로젝트 IMA 크리티क्स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송채정(IMA 크리티क्स 연구자)

송채정은 미술과 도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연구와 비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했으며 동대학원 미술경영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일민미술관 비평 연구 프로젝트 IMA 크리티क्स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김현성(참여 작가)

김현성은 아카데미 오브 아트를 졸업했다. 1996년 귀국한 이후 개인 스튜디오 엠비언트를 열었다. 2004년 UFO 스튜디오를 설립했으며 2009년 환경 및 동물 복지 문제를 다루는 패션문화잡지 『오보이(OhBoy!)』를 창간했다.

목정욱(참여 작가)

목정욱은 런던 커뮤니케이션 컬리지와 런던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으며, UFO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W』, 『엘르』, 『GQ』 등의 국내외 패션 잡지 에디토리얼을 비롯, 준지, COS, 프라다, 발렌티노, 디올 코스메틱,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 화보, 〈거인〉 영화 포스터를 촬영했다.

이미혜(기획 협력)

에디터이자 기획자로 활동하는 이미혜는 패션 매거진 『보그』의 전 피쳐 디렉터로 미술과 디자인에 관한 글을 써 왔다. 현재 디자인 갤러리 kkotssul(꽃술)의 대표로 산업화 시대 이후 한국의 디자인 문화사를 연구하고 있다. 전시 《한국패션 100년》(문화역서울 284, 2016), 《뉴호움》(안테룸서울, 2021) 등을 기획했다.

홍석우(The NAVY Lab 디렉터)

홍석우는 서울에 기반해 활동하는 패션 저널리스트이자 패션 컨설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서울의 거리 패션 사진을 담은 블로그 유어보이후드(yourboyhood.com)의 발행인, 데일리 프로젝트의 바이어, 그리고 패션 스타일리스트, 강사, 패션 에디터 등으로 일했다. 현재 모바일 매거진 『더네이비매거진(TheNAVYMagazine.com)』의 에디터이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더네이비랩(The NAVY Lab)의 디렉터로서 지역의 이야기와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장석종(Double Lovers 디렉터)

장석종은 2007년 국내 최초의 스트리트패션 잡지 『크라커유어워드روب(Cracker Your Wardrobe)』를 창간해 2015년까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5년부터 아이웨어 브랜드 더블러버스(Double Lovers) 디렉터를 맡았으며 2021년부터 패션 브랜드 프레디앤머큐리(Freddie and Mercury), PAME66의 디렉터를 겸하고 있다.